

천꾸교벤투라성당

SANTA BARBARA PASTORAL REGION / ARCHDIOCESE OF LOS ANGELES

본당신부 홍준기 예로니모 평협총회장 설은규 레오날드(805-814-3886) 주소 601 S. St. Oxnard, CA 93030 사무실 805-263-6215 홈페이지 venturakcc.org 이메일 venturakcc@gmail.com

미사시간 안내				
주일	목 (첫 주는 성시간)	금	토	
오전 10시	저녁 7시 30분	오전 9시	오전 9시	

성령 강림 대축일

- 2025
- 06
- 08

주보

입당송 지혜 1,7 참조

주님의 영은 온 세상을 채우시고 만물을 살리시며 온갖 말을 다 아시네. 알렐루야.

제1독서 사도행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1 ¬ ∟과 24 ¬ ⊏.29 ∟ ⊏ -30.31과 34(◎ 30 참조)

◎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 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 하느님, 당신은 참으로 위대하시옵니다. 주님, 당신 업적 얼마나 많사옵니까! 온 세상은 당신이 지으신 것으로 가득하옵니다. ◎
- 당신이 그들의 숨을 거두시면, 죽어서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당신이 숨을 보내시면 그들은 창조되고, 온 누리의 얼굴이 새로워지나이다. ◎
- 주님의 영광은 영원하리라. 주님은 당신이 이루신 일을 기뻐하시리라. 내 노래 그분 마음에 들었으면!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리라. ◎

부속가

성령님.	주님의빛	그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마음의빛.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돋우소서.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위로를.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뿐이리라.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고치소서.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바루소서.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베푸소서.
쌓게하고	구원의문	활짝열어	영원복락	주옵소서.
	아버지, 위로자 휴식을 행복의빛 없으시면 씻어주고 풀어주고 굳게믿고	아버지, 오소서 위로자 영혼의 휴식을 무더위에 행복의빛 저희마음 없으시면 저희삶의 씻어주고 메마른땅 풀어주고 차디찬맘 굳게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오소서 은총주님, 오소서 위로자 영혼의 기쁜손님 저희생기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때에 행복의빛 저희마음 깊은곳을 가득하게 없으시면 저희삶의 그모든것 해로운것 씻어주고 메마른땅 물주시고 병든것을 풀어주고 차디찬맘 데우시고 빗나간길 굳게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칠은

제2독서 코린토 1서 12,3 = -7.12-1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영성체송 사도 2,4.11 참조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하느님의 위업을 선포하였네. 알렐루야.





전 례 상 의 예물 준비 예식에서 성직자가 포도주가 담긴 성작에 물을 조금 섞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포도주에 물을 섞는 예식은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유래합니다. 물이 귀하여 식사 때 주로 마시는 음료가 포도즙이었습니다. 포도즙은 시간이 지나면서 발효하는데 우리나라의 포도는 당도가 낮아서 포도즙이 초 로 변하지만 근동에서 재배하였던 포도는 당도가 높아 발효하여 포도주로 변합니다. 오늘과 같은 냉장 시 설이 없던 당시에 당도가 높아 높은 도수로 유지되면 오래 보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식사 때는 취하지 않으려고 포도주에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중세 시대에 이 행위가 전례에 도입되었고 실용적 수준을 넘어서 신학적 해석이 더해졌으니, 이제 포도주 에 물을 섞으면서 사제는 속으로 다음의 기도를 바칩니다. : "이 물과 술이 하나 되듯이 인성을 취하신 그리 스도의 신성에 저희도 참여하게 하소서."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상징하고 물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인성(人性)을 상징합니다. 포도주와 물이 섞여서 분리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리와 같은 인성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와 결합하면 그 분의 신성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하느님과 일치하여 구워됨을 드러냅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요한 19,34)에서 교회의 성사가 비롯되었 는데, 포도주와 물이 섞이는 것은 우리 교회(물)가 성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피, 포도주)와 일치함을 의미 합니다.



환우를 위한 기도

설옥진(카타리나) 자매님이 쾌유하실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정성어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보편지향 기도

- 벤투라 본당 수리 및 공사를 위해 Call to renew 기금 지원을 결정해 주신 산타바바라 지역 주교님과 관계자분들. Call to renew 기금에 동참해주신 LA 교구 성당의 모든 신자 분들께 감사 기도 바랍니다.
- 워싱턴 DC 항공기- 헬기 충돌 사고로 희생되고 실종된 67분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 바랍니다.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과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1. 평일미사 안내

공사기간 중 평일 미사는 없겠습니다.

2. 성경공부 안내

• 일시 : 25년 6월 8일(주일), 6월 25일(주일)

• 준비물:성경

3. 성당 2층 청소

11시 40분 성경공부 후 성당 2층 청소가 있겠습니다.

4. 성당 공사 감사기도 봉헌

전기 합선 및 누전, 복도측 지붕 누수 등의 본당 안전과 직결되는 시급한 공사와 본당 외벽 페인트, 2층 교리실 및 사제관 내부 페인트, 외부계단과 같은 필수적인 공사, 그리고 2층 카페트 바닥 교체, 친교실 및 복도 전등 및 천장 교체, 성당 외부 센서 및 카메라를 통한 보안시설 등의 추가 시설개선 공사까지 교구에서 크고 많은 공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본당의 자체 재정으로는 어느 한가지도, 심지어 시급한 공사마저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구의 절실하고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를 본당에 베풀어주신 하느님과 교구에 감사를 드리며 5월과 6월 두 달간 전 교우가 감사기도를 바치고, 주교님께 감사기도 영적예물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오니, 한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u>교우 1명당 1주일에 묵주기도 5단</u>씩, <u>5월, 6월 두 달간 40단</u>을 감사기도의 지향으로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달간 기도 후 감사기도 영적예물에 체크하셔서 6월 29일(주일)에 봉헌할 때 같이 봉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 제 34차 성령세미나

• 일시:6월 20일(금) 17:00-6월 22일(주일) 15:00

• 장소:테메큘라 꽃동네 피정센터 (951-302-3400)

• 참가비: 300불(2박 3일 6식), 선착순 50명

6. 제 50차 여성 꾸르실료

• 일시:7월 17일(목)-20일(주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treat center (20214 Saticoy St. Winnetka, CA 91306)



7. 개인 맨몸운동 지도안내

• 일시 : 7월 5일(토) 11시 부터 시작

• 장소:강당

• 내용: 개인 맨몸운동 (밴드운동, 런지, 스쿼트, 푸쉬업, 스트레칭)

• 준비물:운동복

• 봉사자 : 김선태 (야고보)



6월 8일 성령 강림 대축일	6월 15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제1독서 : 박기연 에스더	제1독서 : 박태진 꼴베		
제2독서 : 김영애 안나	제2독서 : 박미라 요세피나		



천주교 벤투라 성당 공동체는 본당 신자들의 아낌없는 봉헌에 의해 유지되고 성장합니 지 정소 식 다. 이웃 사랑 계명과 교회법이 요청하는 대로 자선과 희사를 순수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모든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들의 정성				미사 참석		
	교무금	헌금	기부금/기타	합계	본당	공소	합계
6월 1일	\$540	260		\$1,000	30	5	35
		공소 \$200					
6월 8일							
6월 15일							
6월 22일							
합계							

교무금 현황 김남헌(4-6), 박진무(5), 김광일(6)